東大新聞

發行人 徐燉珏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編輯部長 金衡均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学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㉑8131~9
本社直通 ㉑8577

每週火曜日發行

今週一言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모든 惡은 다짐지말고.
모든 善은 다 行 하여라.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하라.
이것이 諸佛의 가르침이니라.

大乘起信論

姉妹校, 日本駒澤大와

教授, 學生交流로 本格化

本校 渡日留學生募集

學術·圖書資料交換도 활발

72年10月13日 日本仏教宗立大学 駒沢大学 姉妹結縁을맺은 本校는 지난30日 駒沢大仏教大学長 水野弘元博士의 来校로 結縁当時 合意된 教授相互交換계획과 学生交流등이 本格化되었다。 教授교환과 学生交流計画에따라 本校側에서도 教授와 学生을 선정하여 駒沢大에 보내서 両大学의 教育·研究의 交流와 발전에 이바지하게된다。 이에앞서 지난3月駒沢大에 1백여권의 책자를 보낸데 이었은 本校에서 学校물품에서는 오는7일 駒沢大유학희망자를 선발하게된다。

<사진=水野博士>

駒澤大佛教大學長 水野弘元博士來校

交換教授로 集中講義

날 오후6시에는 総長초대 만찬(코리아하우스)에 참석, 両校同의 友誼를 돈독히했다。

駒沢大学과 本校는 昨年10月13일 徐燉珏総長의 渡日時에 姉妹결연을 맺고 今学年度부터 ①仏教및 宗学 ②学生相互交流 ③図書資料交換 ④学生相互交流 ③図書資料交換②学生相互교환 ④学生 스포츠交流를 긴밀히하여 両大学의 発展에 기하기로 했었다。

博士는 지난2일(毎日 後 3~5시 까지) 부터14일까지 大学院生들에게 「阿毘達磨論」 特講을A세미나실 에서 하며 学部仏生들에게는 本館 講堂에서 水·金曜日 (오후1~3시) 「仏教思想論」을 D세미나실에서 講義하고 있다。

학교측에서는 両校同의 「同意書」에 따라 水野博士에게 本校에서 給料를 支給하게 되며, 오는 2学期에 本校側에서 渡日하게 될 교수 1명을 선발하여 駒沢大学側에서 給与를 받게 된다。

水野博士는 一学期分의 講義를 2週日間에 集中講義하고, 講義가 끝나는 며로 韓国仏教의 重要자료를 답사할 예정으로 있다。

◇水野弘元 博士 略歷및 主要著書

▲1928年 佐賀縣 出身 ▲1949年 東京帝大 文学部 印哲科卒 ▲駒沢大 教授, 東京大教授, 駒沢大仏大学長 ▲著書=南方上座部 論書 解說, 「파리」語文法, 「釈尊의 一生」, 「파리語辞典」 外多数。

佛教系留學生도

7日佛大學長室서選拔

姉妹校인 日本 駒沢大와의 学生交流를 위하여 駒沢大 留学희망자를 募集하고있다。

資格은 仏教学및 禪学을 専攻하는 本校学生과 大学院生과 大学院生(博士·硕士課程)인 데 오는7日 전형을 하게 된다。

登錄金 전액을 면제하는 駒沢大 유학희망자는 오는 7日 오후2시 仏教大学長 室서 직접, 전형시험에 응해야한다。

자세한사항은 学生処로 문의하면된다。

兩校圖書交換

駒澤大2百여권

駒沢大 水野弘元教授의 来校에 일서 姉妹校 日本 駒沢大에서는 曹洞宗 全集을 비롯, 2百여권의 책자를 보내왔다。

本校 図書館에기증된 이들은 駒沢大 水野弘元教授 및 韓国仏教의 重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寺刹造景研究所

所長에 孔泰勳博士兼任

韓国寺刹造景研究所는 国土開発및사찰林의 風致保全·造成등 山地開発에관한 技術제공의 역할을 담당하게될 韓国사찰造景研究所(소장=孔泰勳농림대학장) 설치안이 지난2월26일 学処長회의에서 통과, 오는5일 활동을 벌이게되었다。

韓国寺刹造景研究所의 사업계획을보면 사찰林野및 農林大学長이 세부계획및 樹內容을 作成 이번 말목 운用을시작, 이를 기초로 孔泰勳교수를 보게될 韓国寺刹造景研究所는 今年中 全国 11位주조정및 保安林造成, 苗圃運営등인데 総務院이 주관이 되어 그산하에 山地局을두고 韓国寺刹造景研究所와 상호협조하게 되었다。

지난71년11월 제1회 암 前 理事이 寺刹林의 効率的인 運用을시작, 이를 기초로 孔泰勳 農林大学長이 세부계획및 樹內容을 作成 이번 말목 운用을시작, 이를 기초로 孔泰勳

造景研究所의 發足

社說

一

學校 발족은 그간 여러의 協議 끝에 드디어 附設機關으로 造景研究所를 設立, 發足시켰다。우리는이 造景研究所의 發足이 매우 時宜適切한 것임을 말할 것도 없고現下 政府 당국에서도 이方面에 非常한 關心을 갖고 있는 만큼 國家施策에도 副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農林大學의보다 多樣한 發展을 위해서도 그 有爲性이 더단히 크다는것을 認定하면서 贊意를 表해 마지 않는다。

더욱이 全國에 散在한 無數한 寺刹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本大學校에서 이 方面에대한 研究를 한다는 것은 本大學校만의 特權이라 하고도 할 수 있으며 이 研究所의 活動은 적게는 各寺刹의 面目 一新으로 부터 宗団의 美化에 따른 發展, 크게는 全国土의 美化에 따른 國家의 發展에 直線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研究所는 本大學校만의 研究所가 아닌 汎宗団的인 研究所로서의 資格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研究所의 活動에 參考가 될 몇가지 問題點을 提示코자 한다。

二

造景研究所가 主眼點으로 삼을 研究対象은 아무래도 寺刹周辺의 造景事業이 아닌가 한다。

全国에 散在한 2千餘의 寺刹중 제대로 造景이 되어있는것은 그중 1、2%에 불과하며 절을 찾는이로하여금 敬虔하고 肅然한 마음을 갖게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 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三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四

우리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五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六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七

제대로의 造景이 되어있는것은 그간 몇차례의 協議 끝에 드디어 附設機關으로 造景研究所를 設立, 發足시켰다。우리는이 造景研究所의 發足이 매우 時宜適切한 것임을 말할 것도 없고現下 政府 당국에서도 이方面에 非常한 關心을 갖고 있는 만큼 國家施策에도 副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農林大學의보다 多樣한 發展을 위해서도 그 有爲性이 더단히 크다는것을 認定하면서 贊意를 表해 마지 않는다。

더욱이 全國에 散在한 無數한 寺刹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本大學校에서 이 方面에대한 研究를 한다는 것은 本大學校만의 特權이라 하고도 할 수 있으며 이 研究所의 活動은 적게는 各寺刹의 面目 一新으로 부터 宗団의 美化에 따른 發展, 크게는 全国土의 美化에 따른 國家의 發展에 直線的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研究所는 本大學校만의 研究所가 아닌 汎宗団的인 研究所로서의 資格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 研究所의 活動에 參考가 될 몇가지 問題點을 提示코자 한다。

二

造景研究所가 主眼點으로 삼을 研究対象은 아무래도 寺刹周辺의 造景事業이 아닌가 한다。

全国에 散在한 2千餘의 寺刹중 제대로 造景이 되어있는것은 그중 1、2%에 불과하며 절을 찾는이로하여금 敬虔하고 肅然한 마음을 갖게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八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九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十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十一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十二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十三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十四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十五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十六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十七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十八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十九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二十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二十一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해서나 또는外国観光客을 맞는 우리에서 나하루速히 이루어져야할 일이며 하다고 그意義는 매우 重且大하다。

이러한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에있어서 우리가 指摘하고싶은것은 그 造景 그자체를의미하는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단純한造景, 그것은 寺刹주변以外의 곳에서 우리 必要한것이나 研究者 諸位가 寺刹의 造景에있어서 念頭에두 야할것은 殿閣이나 塔・石燈・浮屠・碑石과같은 聖寶로는 寺境內外에있어서는 이루어져겠다는 것이다。寺刹造景은 單純한 観覧地 또는 놀이터가 아니라는것을 無言중에 나타낼수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찾는이가 모두 聖域에 들어가는 기쁨을갖어 高声과 低調 行為는 말할 것도 없고 안갖도록하고 休紙한장 嚴粗한 마음씨로 參拜를 하도록 꾸미는데에 그 寺刹造景은 제대로의 구실을 할수 있을것이다。

二十二

두째로는 聖域化를 위한 造景을 하되 그聖域은 中国式도 日本式도 아닌 韓国式이어야겠다는 것이다。

이런점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佛国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러한 特徵을 살리는 方向에서 寺刹의 造景이 이루어져야 할줄안다。

造景研究所가 対象으로삼는 것은 바로 주변의 造景化 事業이라고 하겠다。이點에 대해서는 本欄에서도 指摘, 强調한바가있지만 사실 우리 学校만큼 造景面에서 落後된 大学도 別로 없을줄안다。그러면 울창한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이方面에 너무도도 等閑해온것이 숨길 수없는 그동안 사실이었다。어느구석에 六十有七年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가있단말인가。情緒의 어느 가리키는 바로 哲学가 渡澄과 벤취가있는데 있단말인가。

이런 점에서 새로 造景研究所의 主対象은 焦眉의 寺刹境內外의 造景化이겠지만 寺刹境內外의 樹木과 公園化된 구석구석을 聯想케하는데 보탬이 되고있지 못한 現実情으로 볼때 寺刹境內外의 造景化는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지않을수 없다。또한 觀光・레저지・붐의 高潮이며 休日이나 週末이면 의례히 못사람의 발길이 山寺로 向하고있고 또 日益 增加一路에있는 外国観光客들의발길도 到処의 寺医를 探勝의 對象으로삼고있어 寺刹境內外의 造景은 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나 절의 体面과 宗団의위신을 위

藥用造林에 展望밝은 特殊漢藥材 杜仲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中国의 漢医学을 받아들여 各種 漢藥材가 草根 木皮 類를 主材料로한 中国産品을 輸入 사용해왔다。그중에는 국내의 植物로 대용할수 있는것이 다했지만 효능은 중국산만이 으뜸으로 생각됨까닭에 약초재배가 활발하지 못하다가 최근 관심을 가지는경향이 있다。杜仲도 중국특산의 補藥劑로써 수입해오던 귀중품의 하나다。이 杜仲은 중국의 일부를 除外하고는 그分布를 볼수없는 単科単種의 珍貴한 나무다。

呉 正 壽
<農林大 林学科 실험실>

杜仲의 渡來와 歷史

杜仲의 渡來는 1079年、即 高麗文宗33年7月 로써 杜仲이 다른 藥材와함께 宋나라에서 보내왔다。

方藥合編에 의하면 李時珍의 本草綱目으로부터 引用한 膏、丸外 19種의 杜仲에 対한 처방이 있다。

이것은 藥材(樹皮)로서의 輸入이며 生産物의 搬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交通事情이 不便하던 옛날에는 原産植物과 関係書籍에 依存하여 그 기재된內容과 비슷한것을 国內에서 찾아 代用한듯이 보이는데 杜仲도 그 藥用에만 쓰여온 이 나무가 原産地에서 다른方面에까지 活用되고 있지않나는 추측이 나돌고있다。

杜仲의 形態및 特徵

杜仲나무는 中国의 特産樹種으로써 原産地는 中原 山間地帶의 陝西、四川省等地에 분포하고 북부리 北쪽과 東南쪽 地域에는 볼수없다는 珍貴種이다。

杜仲 即 Eucommia ulmoides Oliver는 범의귀 亞目의 杜仲科에属하는 一科単種의 植物인데 Gum質을 함유한 늘름나무와 유사하다고 표현되지 않은것이 사실이고、1968년12월 国立保健院에서 세밀한 検査결과 原杜仲이라는 例明을 받은바도있다。

이 杜仲나무의 種苗는 日本보다 후인 1930년에 몇그루의 苗木을 서울中央林業試驗場 見本園에 식재되었던 것이다。

同見本園에는 雌木1株、雄木 2株가 현재까지 잘자라고있다。

同見本園의 杜仲이 母樹로서 이제는 巨木이 되었고 10수년전부터 結実된種子로 発芽育成한 나무가 成木을 이루었다。

9代 国会議員 金殷夏議員등 同門 8명과、国内外에서 博士学位를 받은梁渡博士등同門 9명、그밖에 韓国文協理事長으로 당선된 趙演鉉교수등 各界에서 栄転한 同門7명이 초청되었었다。

이날 祝賀会에서 崔会長은 各界에서 東国의 名譽를 떨치고계셔하기위 同窓会의 명예를 빛낸 同門祝賀会를 지난날 27일 오후7시부터 母校学生会館6층에서 성대히 거행했다。「東国을 빛내준 同門」 祝賀会는 崔載九同窓会長의 人事에 이어、祝賀書 낭독과 同門紹介、祝賀牌 수여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祝賀会에는제 9代 国会議員 金殷夏議員(51년政治科卒・6・7・8代議員歴任)▲崔載九議員(51년国文科卒・8代議員역임 동 창회장)▲黃明秀議員(53년政治科卒)▲金東英議員(60년政治科卒)▲崔炯祐議員(63년政治科卒・8代議員歴任)▲安鍾烈議員(69년행정대학원졸)▲李海浪議員(前文理大교수・8대의원역임)▲金濟源議員(본교財団理事・全国仏教信徒会会長・8대의원역임)▲博士学位수여자 ▲梁源毫박사(51년国文科卒・東大교수)▲金聖培박사(51년国文科卒・東大교수)▲徐京保박사(仏大学長)▲李敏浩박사(仏大学長)▲李博(仏教大学科卒・仏大学長)▲李敏浩(仏教大学科卒・東大교수)▲徐京保박사(仏大교수)▲鄭允武박사(58년동대교수)▲金知見박사(60년仏教科卒・동대교수)▲金强模박사(60년大学院卒)▲黃甲系박사(66년大学院卒)▲朝鮮大史학과졸・朝鮮大史학과졸・朝鮮大史학과졸・

<10>

民族의 形成根據

金善政 <法政大 行政学科>

1

이 社会의 알륙적·집념적 요소가 우리인간이 갈구하는 最終的理想과 어떻게 相殺되어 所期의 目標에 도달할것인가? 이를 形而上学的法論에 있어서 모색할때 헤겔은 「理性의 狡智」라는 結論에 당도하였다.

무릇 모든目的을 行動의 進行過程에서 向한 추진력이되는 이와같은 理性내지 理念의 作用과 그 效果는 오히려 철학적인 解釈을 필요로할지 모르나 內面的心理도 결국 外面的行動으로 結果될터이므로 民族의 構成理論을 外面的現象의 측면에서고찰하는것도 一面의 価値가 있는것으로생각된다.

2

代表的인 社会단위인 民族이 그存在를 主張할에는 어떠한 集團을 基礎로서 하게 성립된 어떠한 要素로서 구성요소가 마련이다. 그리고 民族의 構成要素는 곧 그집단 구성요소가 된다. 사실 民族의 樣態는 不変의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現象打破的인 면이고 따라서 基本的인 것이므로 그것은 意識의 状況에 固定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천하는 世界史가 보여주는 극히 기본적인 요소, 만일 民族論에서 그것을 除外할때 民族論이 成立할수없는 諸要素를 抽出한다면 人種과 地緣、그리고 言語와 歴史및文化이다. 민족을 이야기하려할때에 우리는 먼저 그 民族의「삶려는 意志」를 보는것이 필요하다.

3

同一言語를 媒介로한 意思의 伝達은 異質的言語使用者보다 그들을 結束시키기에 鼓舞的이다. 뿐만아니라 言語는 곧 民族文化의 계승과 전달을 가능케하며 言語의 発達은 이러한 意味에서 民族文化의 전개이기도 한것이다.

「피히테」는 言語共同体를 民族構成要素로 보았다. 言語와 関联해 言語는 術인 文学의 民族性에 및 해보자. 同一民族의 同一意識、즉 民族에 対한 意識이 作品勢力으로 되어야만 民族文学의 独自的인 創意가 생겨난다는 「단테」가 그의 民族語文인 플로렌스地方語를 뉴 두고 라틴어로 神曲을 쓰던 때 심한 矛盾을 느꼈다

言語·地緣共同體가 根據

自存·自決能力 具備해야

目的에 도달하기위해 국민들을 結束시켜 行動하는 方向을 提示했던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目的에의 政策遂行은 第1. 2次 世界大戦을 포함하여 特히 近世以後의 抵流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민족주의는 많이 誤導되었다. 그러나 善意의미에서 「生氣가 旺盛한 民族은 興할것이요、生氣가 미약한 民族은 亡할것이다.」

理論 白려사상言語를 刑成키위한 運動을 일으켰는데 이는 白려사 民族主義성립의 전제였다. 民族構成要素의 하나로써 우리는 人種을 들수있다. 人種이란 進化와 混血에서 생기는 類似性을 背除한다면 어느정도 固有한것이라고할수있다. 어떤학자는 人種形成의 요소로서 言語를 指適하였는데 이것은 물론 歴史的立場에서 관측된 것이기는 하지만 血緣 共同体(ultgemeinschaft)의 必須的 人種에 관한 理論은 많이 立論되었다.

그리나 이러한 人種区分이 悪意的으로 利用될 적이 많았음을 看過할수 없다. 이것은 人種論을 経済的측면에서도 그리하였다. 영국의 優等人種論은 主로 그들의 海外市場占有를 合理化하는데 이용되었다.

우수인종인 英国民族이 後進한 劣等人種을 支配하고 先導할 使命이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는 後進国家에서 일어난 유태인 학살도 그리하였다.

그때서 이는 後日에、 몽매한 大衆의 民族主義 The nationalism of the imbecile) 이라고 혹평받게되었다.

人種論은 経済的측면에서도 그리하였다. 영국의 優等人種論은 主로 그들의 海外市場占有를 合理化하는데 이용되었다.

우수인종인 英国民族이 後進한 劣等人種을 支配하고 先導할 使命이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는 後日에、 몽매한 大衆의 民族主義 The nationalism of the imbecile) 이라고 혹평받게되었다.

人種論은 経済的측면에서도 그리하였다.

우선、인학별의 교양과정에서는 특이점을 지닌것을 써야 할 것 같다. 전문의 교육 시간의 여유가 많을 더학생활에 있어 인 간 태도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폭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간 자유의 교양을 쌓아 인생관과세계관을 확립하고 전문의 학문을 연구하여 전문학과 교육을 통한 자유롭게 하며 사회 전공과 함께 인간 자유와의